한국 현대건축에서의 해체주의적 경향

—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한국에서의 김인철, 조건영, 배병길의 작품사례에 대하여 —

成仁洙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 스테판 말라르메 —

1. 들어가며

"하지만 해체는 비평작업이 아니다. 비평이 오히려 해체의 대상이다. 해체는 조만간 비평적 비평, 논리적 비평, 결정권을 가진 권위에 주어지는 온갖 신뢰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해체는 비평의 도그마를 해체한다."

— 쟈크 데리다[1] —

아직 그 흐름이 변하고 있는 해체(해체주의 또는 해체비평)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이를 건축에 적용하는 일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작업도 동시에 가능하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정신의 소산이며, 인간정신의 작용은 세계를 해석할 수 있을 따름이며, 세계를 그 본래의 현실 그대로 남김 없이 전달할 도리는 없다. 만일, 서양철학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주제 또는 테마가 건축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해석을 위해 기본적 전제조건인 텍스트가 동일해야 한다면, 우리로서도 칸트나 니체와 마르크스를, 더 나아가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를 논의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대상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판이론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이 원전에 접근하지 않고, 몇권의 번역서와 건축인들의 해체에 관한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또 하나의 오류, 오독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1960년대 후반 프랑스의 텔켈그룹과 1970년대 초와 1980년대까지의 미국 예일학파 사이를 오고간 데리다로 인해, 해체론이 하나의 학파인 것처럼 등장했다. 당시의 미국 평론가들은 데리다, 드만, 밀러, 블룸 그리고 하트만 등이다.[2] 이러

1) 「이중의 글자」에 실린 한 대담에서, 1977년 3월. 빈센트 B. 라이치, 권택영 옮김,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p. 276, p. 342.

2) 빈센트 B. 라이치, 앞책. p. 70.

한 해체의 대상은 서구철학 전체계로부터 르네상스 이후의 대륙전통의 주요한 문학, 철학 텍스트로, 그리고 19, 20세기의 주요한 영미문학작품으로 옮겨진다.[3] "문학은 철학의 주요한 테마이며, 철학이 열망하는 진리의 모델이다."(폴드만, 1979)라는 말로 지적된 것과 같이, 데리다는 문학에서의 텍스트가 철학을 하던 이들의 영역밖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 헤쳐, 철학을 한다는 것과 문학비평을 한다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문학이 그저 빗대어 설명하는 말놀음이 아니라, "문학을 매개로 해서 자기붕괴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즉, 비평, 철학, 언어학, 인류학 등의 현대 인문과학의 전 영역이 데리다의 비판을 받게 된다.[4]

재빠르게 확산된 포스트모더니즘론은 새로운 모더니즘을 모색하게 한 기폭제였다. 뉴욕 화이브의 백색 모더니즘은 르 꼬르뷔제를 이어받아 계속하려던 모더니즘의 연속이라면, 구성주의는 1920년대에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거나 무시된 것들을 다시 새롭게 검증하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더우기 해체주의는 새롭게 모더니즘을 모색하는 방법론의 하나이다.

1988년은 건축분야에서 해체주의가 선언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아직 런던에서는 해체Deconstruction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해체주의 Deconstructivism라 부르고 있다. 해체주의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해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주의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 구조주의에서의 「구조」는 언제나, 하나의 중심, 고정된 원리, 의미의 위계질서와 확고한 토대를 가정한다. 건축에서의 구조란 서구중심주의에서 태어난 건축의 고전적 원리가 지닌 하나의 흐름을 말한다. '공간'이라는 말은 표시하는 것이며, 그 표시되는 것은 건축공간의 여러 대상에 내재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공간이라는 말과 그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들의 성질 사이에 본질에 가까운 '흔적'을 담는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사상, 언어, 경험의 토대가 되는 어떤 궁극적인 '말씀'·존재·본질·진리 또는 현실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神, 이데아, 세계정신, 자아, 실체, 물질 등의 개념이다. 즉, 인간의 사고의 밑바탕을 이루려고 하는 단어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 가정, 민주주의, 독립, 권위 등이 가진 위치를 생각해 보면, 때로 이런 것들은 다른 모든 것의 '기원', 만물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천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의미가 가능하려면 다른 기호들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5]

2. 텍스트

언어로 표현된 것을 분석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텍스트라고 한다. 그러므로 문학텍스트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을 말한다.[6] 소쉬르가 말한 "언어는 차이가 있는 의미의 그물망"이라는 원리로부터, 문학 텍스트에서 요리, 패션, 사진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다양한 코드 등, 사회의 모든 문화적 현상을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는 언어가 도사리고 있음을 롤랑 바르뜨가 지적했다. 이렇듯이 구조주의 사고 속에 언어라는 것이 방법론상으로 우선권을 쥐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된 데리다는 「언어학과 그라마톨로지」(1977)에서, 씌여진 언어보다 말해진 언어에 상대적 우선권을 주는 소쉬르의 자세를 비판하게 된다.[7]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에 철학자들이 말로 철학을 했던 것에 비교하면, 그 이후, 정확히 말하자면, 데카르트 이후에는 글로 철학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말로 표현하던 때의 서구인의 생각

3) 빈센트 B. 라이치, 앞책. p. 79

4) 크리스토퍼 노리스, 「디컨스트럭션」, 이기우역, 전주, 도서출판인동, pp. 40-41.

5) 데리 이글턴, 김명환外공역, 「문학이론입문」, 창비신서74, 서울, 창작사. 1986, p. 163.

6) 츠베탕 토도로프, 「시학에서의 구조주의」, p. 103. 프랑스와 발르와, 민희석 옮김,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1985.

7) 크리스토퍼 노리스, 앞책, pp. 45-47.

은 보다 정확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텍스트로서의 문학적 작품이 잘못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해석을 낳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본뜻과는 멀어진 길을 걷는다. 글이 널리 퍼지면서 제각기 해석되어 순수한 뜻이 다르게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데리다는 순수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지닌 생각을 종이 위에 적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 했다. 왜냐하면 말하는 행위에 있어서, 데리다는 글쓸 때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와 '일치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말은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식에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목소리는 그 말에 밀접한 자연발생적인 매체가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을 쓸 때에는 머리속의 의미는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 데리다는 "내 생각을 인쇄라는 비인격적인 매체에 맡기게 되며, 인쇄된 텍스트는 지속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를 지닌 까닭에 예측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널리 보여지고, 알려지고 인용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믿었다.

서양철학이 '말'에 중심을 두고, 글을 깊이 회의하는 '음성중심적'(Phonocentric)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로고스중심적'(Logocentric)이었다. 즉, 데리다는 로고스중심적인 태도가 즉, 理性中心主義가 세계를 장악하고 글쓰기, 형이상학의 역사, 그리고 과학의 형태를 지배했다고 지적한다. '글쓰기'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글쓰기는 언어를 초월하고, 그것을 앞서며, 그것을 함축한다.

글이란 하나의 기호이다. 그 글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그뜻을 담는 기호위에 얹혀있다. 이 두개의 뜻과 기호를 나누어 보자. 소쉬르의 기호이론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호는 두개의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와 하나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 즉, '표시하는 것'과 '표시되는 것'의 결합으로 보았다. 왜 둘로 나누었는가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을 나누어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오든과 리샤르는 이를 세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점검하기 위해, 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를, 글을 분석하게 된 것이다. 분석철학이라는 태도, 즉, 언어를 분석한다는 일은 왜 일어 났는가? 인간의 모든 학문적인 활동이나 철학은 말과 말로 이루어진 선언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표시하는 것'과 '표시되는 것'의 관계에 따라, '표시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의 기호가 있다. 지표(Index), 상(像, Icon), 상징(Symbol) 등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되었다.」「꿈은 기표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소쉬르가 말했듯이 어떤 기표라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체계 내에 들어가야 된다. 이 綱이야 말로 언어의 필수조건이다.[8] 소쉬르는 언어의 의미는 단지 구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모든 기호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구별의 조직망으로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9] 소쉬르의 '랑그'는 의미의 한계지어진 구조를 뜻한다. 구조주의가 기호를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면, 종종 '탈구조주의'로 알려져 있는 사고방식은 더 나아가 시니피앙을 시니피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즉, 의미가 기호 안에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에서 왜 해체와 관계를 맺으려 하는가? 이 질문은 츄미의 행적과 그의 자세로부터 시작된다. 베르나르 츄미는 브로드벤트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츄미는 1968년도 빠리의 지적 분위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미쉘 푸코나 롤랑 바르뜨 등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이 관여한 텔퀠(Tel Quel) 그룹이 츄미의 영웅이였다고 말한다. 츄미가 읽은 데리다의 책은 「문자학에 대하여, De la Grammatologie」, 「철학의 변두리, Marges and de la philosophy」, 「입장들 또는 정립 Positions」이라고 했다.[10]

데리다는 「입장들」에서 '소쉬르가 기호란 추상

8) 빈센트 B. 라이치, 앞책. p. 20~27.

9) 테리 이글턴, p. 158.

10) Geoffrey Broadbent, 「Deconstruction-A Student Guide」, UIA Journal of Architectural Theory and Criticism, London. Academy Editions, 1991. p. 66.

적 구체적 대상과 일대 일 관계에 놓여있는 표상'이라는 기호학 이론의 토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11] 동등한 이분법의 대립항들이 실제로는 종속의 관계임을 드러낸다.[12]

3. 차연

차연(差延)이라는 말 diffrance는 프랑스어 differer가 to defer(연기하다)와 to differ(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착안한 데리다의 신조어로서, 쉬운 우리말로는 "늦차이" 또는 "늦ㅡ다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13] 그러나, 데리다는 차연이란 낱말도 개념도 아니라고 한다. 그는 차연을 어떤 하나의 개념적 도식에 포착되지 아니하는 '전략적 부호 또는 결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成中英은 '도(道)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14] 언어에는 시간적인 과정이 관여한다. 누군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것의 의미는 어느 정도 '연기' 또는 '지연'되거나 '다르게 퍼진다'. 이전의 의미는 나중의 의미에 의해서 수정된다. 이전의 구조주의자들이 바라본 언어의 확실성에 대해, 데리다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말하고 있다. 언어의 어떤 기본단위도 절대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15] 이렇게 불확실한 언어의 특질을 차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언어가 불확실하다면, 언어에 기초를 둔 사상이나 기호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표현물들도 역시 그러한 불확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르게 이해된 그 차이, 흔적 속에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항 쌍, 「記意/記表」를 뒤집으면서, 데리다는 새로운 개념을 산출한다. 소쉬르의 기호의 자리에 '흔적'을 배치하는 것이다. '신비하며 감지할 수 없는 흔적'을 형성시킨다.[16] 해체주의는 '고전적 구조주의가 즐겨 사용하던 "이원적 대립관계들이 이데올로기의 특유한 사유방식"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17]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허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아와 비자아, 진리와 허위, 의미와 무의미, 이성과 광기, 주변과 중심, 표면과 심층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긋는다.

그러나 이원론의 대립항으로 건축요소를 해석하여, 외부보다 내부공간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老子, 비투르비우스, 라이트, 브르노 제비 등이 이미 지적한 말이다. 또, 로버트 벤츄리의 '양자-모두 Both-And' 개념이나, '닫혔으나 열린'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 쇼단의 경우가, '통일성이 있으나 동시에 이중성이 있는' 경우,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그러하다.[18]

이에 데리다는 모든 위계질서를 만들 수 있는 결점없는 기초ㅡ제1원리 또는 반박할 수 없는 토대ㅡ에 의존하는 모든 사상체계를 '형이상학'이라 이름 붙인다. 말을 하여 형이상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틀에 의해서 만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글쓰기를 격하시키고 말에 의미를 두어온 인간의 理性은 합리적인 사고를 위장하여, 이미 형성된 二元的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글에 담겨 있지만, 흔히 무시되어 온 흔적을 확인하고 언어개념간의 차이를 밝혀, 二元論의 틀에 묻힌 생각을 구하자는 것이 데리다의 요청이다.

예를 들어 아그레스트와 간델조나스는 '건축'을 '텍스트'로, '건축의 실현'을 '글쓰기'로 생각하기를 권한다. 그가 권하는 것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들의 생각에 대해, 인디크는 말하기를 "신비평의 시대에 문학에서의 텍스트를 건물에 비교하는 것은 환상적이기"조차 하다고 했다. 물

11) 존 레윌린, 「데리다의 해체주의」, 서우석, 김세중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p. 75.
12) 빈센트 B. 라이치, 앞책. p. 243-4.
13) 존 레윌린, 앞책, p. 22.
14) 마단 사럽와, 임헌규편역, 「데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부천: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1. pp. 181-183.
15) 마단 사럽와, 앞책 pp. 20-21.
16) 빈센트 B. 라이치, 앞책. p. 37.
17) 테리 이글턴, p. 165.
18) Academy Editions, 앞책, p. 64.

론 텍스트란 부분적으로 독자들의 선입견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만질 수 없는 대상으로 「심상적 경험들」 Mental Experiences이다. 마치 리샤아르가 「실천비평」(1929)에서 보여 주었듯이, 비평의 임무는, 적절히 말하자면 독자들이 올바로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리샤아르가 보여준 것처럼 페이지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세기에 문학비평을 괴롭힌 문제의 하나는 —— 무엇이 정확한 독서인가? 무엇이 정확한 종류의 경험들인가? 하는 것이었다.[19]

4. 1968년 5월, 빠리

이런 생각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빠리 시가지에서 벌어진 한달간의 사태로부터였다. 학생, 공학엘리트, 일반시민, 공장직공 등 많은 계층이 참여한 대대적 민주화봉기는 어떤 하나의 사태나 부조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프랑스전체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익정부를 상대로 한 운동이었지만, 노동자계급이나 프랑스공산당도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마르크시즘에 대한 환상도 깨어졌다. 드디어 철학은 새로운 모델을 찾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가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등의 전환기 및 발아기로서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 사건이 건축의 교육기관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샤를르 드골 정부에 의한 에꼴 드 보자르의 폐쇄였다. 콜베르에 의해 1671년 건축아카데미로 창설되고, 나폴레옹에 의해 1806년 에꼴 드 보자르로 개편된 이래로, 프랑스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한 건축학교였다. 이 학교가 1968년 여름에 폐쇄되었다. 집단주거(Social Housing)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다. 그 뒤 보자르는 다시 개설되었지만, 이미 정치적 성향이 농후한 교육단위가 있는 8개의 교육단위(UP)의 학교로 변한 시점에서, 옛모습을 지니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20]

르 꼬르뷔제의 죽은 이후의 「68년이후」 세대에게, 이 사건은 새로운 건축을 잉태하게 한 정신적인 배경이었다. 「대통령의 프로젝트」로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었지만, 베르나르 웨트Bernard Heut가 이끄는 잡지 「오늘의 건축」 Architecture d'Aujourd'hui의 후원으로 1976년에 진행된 라 빌레트 La Villette지구 설계경기에서 「68년이후」 세대가 추구하던 건축적 주제가 나타난 것이다. 도시를 잠식해 버린 조형형식주의의 모더니즘으로부터, 도시를 구출해 내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5. 해체와 건축

해체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그들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철학의 논점에 대해 이론적 반성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았다. 즉, 서구의 근대문명과 나란히 시작된 그들의 합리주의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반성하려는 논의와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건축과 비교되어 설명된 것은, 다른 관련 예술보다 건축이 언제나 구체적 대상을 지니므로서, 실체를 실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하나의 다른 시각언어로서 번역되어야 할 과제를 지니므로서 어려워진다. 철학과 건축 사이에서의 「해체」는 서로 관계가 적다는 것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베르나르 츄미의 건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기는 하나, 실제로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인 설명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하 하디드는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데리다가 주장하듯, '해체'는 결국 쓰여진 텍스트를 다루는 문학적 작업이라면, 건축적으로는 건축적 텍스트를 해체할 수도 있게 된다. 즉, 비투르비우스나, 르 꼬르뷔지에 또는 로버트 벤츄

19) Ivor Indyk, 「Literary Theory and Architectural Practice, A Note on Agrest & Gandelsona's 'On Practice'」, 「International Architect」, U. I. A. No. 1, Vol. 1, pp. 52-53.

20) 마크 포스터, 이정우옮김, 「푸꼬, 마르크시즘, 歷史」, 富川, 도서출판인간사랑, 1983. pp. 19-22. Heig Beck, 「L'Architecture Nouvelle;France after 68 : Theory into Practice」 「International Architect」, U. I. A. 1983. Issue 1, pp. 7-13.

리에 이르는 建築史家, 건축가들의 글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그들의 선언이나 발언상의 잘못된 부분, 해석상의 잘못이 그대로 이어지는, 해석학적 순환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있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궁극적 대상이 글이 아니므로 다시 심각한 측면을 맞게 되는데, 이것은 츄미가 데리다를 만나고자 했을 때, 데리다가 츄미에게 물어 본 말과도 상통한다. "왜 해체에 관심이 있는가?" 츄미는, "건축은 형태와 위계를 갖는 틀의 문제로서 해석이 되고, 그러한 틀(구조)로부터 탈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21]

"어떤 형태든 과거의 형태들에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마련인데, 아마도 1920-1930년대의 러시아 구성주의에 해체주의 건축의 새로운 형태들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필립 존슨은 말한다.[22]

필립 존슨과 마크 위글리에 의해 마련된 「해체주의 건축」 전시회에서 이루어진 7명의 건축가의 흐름에는 공통점이 적다는 것이 위글리의 지적이다. 그는 해체주의 건축은 "디컨스트럭션으로 알려진 있는 최근의 철학 방식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해체주의 철학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연히 몇몇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23]

자하 하디드는 10여년전에 해체가 시작될 무렵에는 모든 관련 건축가들—츄미, 리베스킨트, 힘멜브라우, 아이젠만, 게리, 쿨하아스—이 해체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 자신도 데리다의 책을 전혀 읽지 않았고, 그들은 유럽건축의 '규칙'을 해체하려 했으나, 그녀 자신은 유럽 건축가도 아니였으며, 그런 배경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브로드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녀는 소련의 구성주의 보다는 쉬프레마티즘(지상주의 또는 절대주의로 번역되는) 즉, 기하학적 추상주의를 따르고 있었다고 말한다.[24]

츄미는 신념을 해체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마련했다. 정말로 프로그래밍의 '탈-해체' 기법을 묘사했는데, (A+U, 89 : 10) 아래와 같다.

CROSSPROGRAMMING : 기존공간배체를 전혀 의도치 않은 것으로 공간을 바꾸는 것, 즉, 교회건물을 볼링센터로 사용하는 등, 형태재배치와 유사한 기법;시청 내부를 감옥으로 바꾸거나, 박물관 내부를 주차장으로 하는 등.

TRANSPROGRAMMING : 서로 상반되는 각각의 공간형태를 무시하고 두개의 프로그램을 합치는 것. 참고;천문대+청룡열차놀이시설

DISPROGRAMMING : 두개의 프로그램을 합한 결과, A의 프로그램으로 요구된 공간배치가 B의 프로그램이나 B로서 가능한 배치를 어긋나게 한 경우, 프로그램 A안에 내재된 모순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그리고 B의 요구된 공간배치는 또한 A에 적응이 된다.[25]

데리다는 처음에 철학적인 주제로서 서구정신문화의 흐름 속에서 강렬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지만, 건축에서는 단지 형태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과 기법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기능과 용도로 대별되는 형태간의 충돌로부터 형태가 다양해지는데, 기계부품들의 연결관계처럼 건축의 부분적인 매스가 충돌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결되는 축과 형태가 기계들의 다양한 접합방법으로 치환되므로서 구성주의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충돌관계가 있다. 과거의 것과 새로운 공간 형태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다. 러시아 화가 말레비치에 의해 1915년 「쉬프레마티즘 선언」이 발표되었다. 절대주의가 표방하는 '순수한 감성'이란 혁명의 과정에서 떨쳐야 할 모든 대상을 가르킨다.

21) Academy Editions, p. 66.

22) 필립 존슨, 「서론」, 필립 존슨/마크 위글리편집, 이일형/김능현 공역, 「해체주의 건축」, 서울, 도서출판 전일, 1991, p. 5.

23) 마크 위글리, 「해체주의 건축」, 필립 존슨/마크 위글리편집, 앞책, p. 9.

24) Academy Editions, pp. 88-89.

25) Academy Editions, pp. 67-68.

6. 한국의 상황

지금까지 밝힌 것은 해체에 관한 흐름과 이론적 배경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해체적 작품과 유사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과 연관을 맺기 위해서는 건출물을 텍스트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것이다. 건축은 형태를 다루므로서, 어떤 경우에는 실제 이론적인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때 포스트모던 건축이 유행하던 시기에, 문학을 전공하는 이는 매스컴의 질문을 받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축분야에는 많은 진전이 있으니, 건축분야에 가서 물어보라."

우리의 상황과 조건으로 실제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룩되었는지 궁금하며, 이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건축물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수도 있다. 그 건축물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중요한 점을 우리가 누락시켜서 오해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의 의해 오해된 채로 우리가 기억하기도 한다. 역사적이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물의 의의를 우리가 잘못 읽었을 때, 그 의미는 잘못 전해진다. 건축적 배경으로서의 한국 현대건축의 상황은 다소 혼미하거나 그 흐름을 잡기가 어렵다.

근래 벌어지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각종건축양식의 흐름이나 유행이 한국에서 쉽게 받아들이는 근저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부터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자. 우리가 건축을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나 원칙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산업화사회에서 우리는 이것과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이다. 올바르게 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해체를 해야한다면, 해체의 대상은 무엇인가?

한국의 전통건축에서의 유적, 유물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텍스트로 남아 있는 고건축을 우리가 잘못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의 본래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오래된 사찰이나 궁궐에는 화재로 인한 중건 기록이 많다. 또, 초가나 기와로 된 주택들은 그것이 불타거나, 훼손되어 보살피지 않는다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록이 효과적이지 않는 한 거의 원점의 상태에서, 다시 지어야 하는 목수의 머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서양건축인들이 정신은 사라지고 책에 나타난 형태를 만드는 조항에 따라 답습을 해온 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무한한 자유를, 창작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은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글이 아니라 말로서 살아 있는, 건축적 유산이다. 이곳에는 데리다가 말하는 이른바 '흔적'이 얼마든지 남아 있다. 이러한 흔적에서 우리의 정신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에 접근하는가 하는 일이다. 이 일은 후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땅이 비워진 자연상태"로부터 얻은 무한한 자유는, 그것을 운용하는 이에 따라 그것이 본래의 정신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끝없이 멀어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는 많은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모더니즘초기로부터 현대에 유행하는 모든 사조로부터 일정한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듯 '비워진 자유'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과 노력을 요청하는 큰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가의 투혼과 정열을 기다리는 것이지, 지나가는 유행의 대상으로서 이를 빛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7. 작품들

대학로에 세워진 조건영의 「JS빌딩」이나 잇따른 「우성사옥」 등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긴장성은 그러한 의도가 내부에 숨어 있지 않고 노출되거나, 자제를 하지 않으므로서, 더욱 시각적 충격으로 우리에게 보인다. 이것은 작가의 대사회 발언이 강하므로 더욱 큰 힘을 지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거리에서 마주치는 많은 건축물 중에서, 어떻게 일상성을 벗어나고 새로운 시도를 독

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가 안주하려는 모더니즘의 속성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문법과 어휘로 된 다른 언어로 씌여진 건물이다. 그러나 이 언어가 과거로부터의 우리 기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흔적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은 무엇을 해체했는가? 건축을 둘러싼 사회제도나 그것에 암암리에 영향을 끼치는 자본주의나 경제적 속성을 해체하여 현실 앞에 드러낸 격이다.

김인철이 설계한 부산의 SKIP-UP의 경우에는 노출콘크리트에 의한 단순한 벽속에 또 하나의 집이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존의 사각매스의 단순성 속에 그 내부에는 그와 상충하는 다른 좌표계의 기둥이 존재한다. 이러한 축의 변형은 내부 바닥변화와 램프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형태적 증폭을 이룬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맥락은 외부에서의 이러한 변형을 용납하지 않는다. 작가의 기질과도 관련있는 이 형태는 조심스레, 변형의지를 지니고 있다. 적어도 다른 사례에서 드러내는 의도적인 축의 변형이 도리어 응축되므로서 자연스레 스며있다. 직교좌표계에 대해 어휘를 적절하게 자신의 어휘로 흡수하는 예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각적인 시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SKIP-UP 건물도 Transprogramming에서와 같이 두개의 프로그램의 상충에 의한다면, 더욱 형태가 다양했을 것이다. 두개의 프로그램에 의한 두개의 좌표계가 아닌것이 형태를 시도에 머물게 한다.

신인 배병길이 율곡로에 설계한 「국제화랑」 건물은 그 형태의 신선한 감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신선함이 우리에 신선한 감정이나 추억까지 제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상적인 매스로부터 신선한 감각을 이끌어 낸 공간적 효과는 작가의 새로운 훈련에 의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은 다소 충격적인 형태에서 기인한다. 보여지는 형태 중에서, 중앙부의 유리 프레임이나, 벽에 꽂혀 있는 사각 틀, 노출 담위에 쓰러질듯이 세워진 철제틀만 제외한다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건물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을 가미하므로서, 서너 가지의 패턴에 의해 색다른 발언을 하려는 표정을 지닌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색다른 발언이 어떠한 것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데 있으며, 단지 건물의 상징성을 새로운 형태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8. 마치며

새로운 모더니즘을 향한 건축사조——해체주의, 세미오틱스, 구성주의등의 건축실험정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 역사적인 과제로부터 우리의 건축은 글이 아니라, 말로 살아있는 건축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룩된 우리의 건축이 진정 살아 있는 건축이 아닌가? 후대의 건축가로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정신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해체주의 건축의 경향은 또 하나의 유행으로서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사라질 것이다.

살아 있는 텍스트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창작을 해야하는 건축가들에게 효과적으로 읽혀지기를 바라게 된다.

참고문헌

1. 「A. D.」, 1989. 1/2. 「Deconstruction Ⅱ」
2. 「A. D.」, Design Profile No. 87, 「Deconstruction Ⅲ」
3. Albrecht Wellmer,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이주동, 안성찬역 서울, 도서출판 녹진 1990.
4. Peter Eisenman, 「HOUSE X」, New York, Rizzoli. 1982.
5. Wojcich Lesnikowski, 「The New French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1990. 이재기역 서울, 영문출판사. 1991.

The Trend on Deconstruction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Korea

Seong, In Soo

ABSTRACT

What is Deconstruction which is now the focus of the current architectural discussion? In order to know the Deconstruction properly, we should review the background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in architecture. As we know, the 1968's serial uprisings of democratic movement in Paris changed human concepts about art dramatically. As the result of that movement new ideas such as Structuralism, Post-structuralism, Deconstruction, and Semiotics arose. In architecture some ideas like construotioniem were not practised fully in 1920's and only the Modernism has been realized as the idea expressing the modern Utopia.

In Korea situation to interprete architectural ideas into real building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n architects are seemed to use Deconstructionist vocabularies as fashionable styles without being concious of the root and history of Deconstruction. For Koreans the contexts are different. Although Modernism and Functionalism have been practised vigorously in Korea as other countries, the situations are ambiguous and complicated in applying new ideas introduced after Moderism. So they are in chaos.

What could be our orthodox ideology to be worth pursuing in arthitecture? There are several sample works of Deconstruction in Korea done by Jo, Geon young, Kim, In Chul and Bae Byung-Gil. Aithough their works cannot be interpreted as real Deconstruction in European or american view-points, I think they are good examples of Korean Deconstruction that express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and its social background.